

새벽 火魔에...우애 깊은 어린 남매의 비극

순천서 투병 아들 돌보던 가족 3명 참변...아버지는 의식 회복 샌드위치 패널 건물 붕괴 급속히 번지며 구조활동도 어려워

올해 순천의 한 초등학교에 입학한 김모(7)군은 무척 밝은 성격의 아이였다. 3년 전부터 급성백혈병을 앓았던 김군은 지난해엔 뇌종양까지 생겨 큰 수술을 받았지만, 아빠, 엄마와 세살 위 누나(10)의 정성스런 보살핌 덕분에 웃음을 잃지 않았다. 경기도에서 식당을 운영하다 실패한 김군의 아빠(39)는 아내 조모(32)씨의 예전 직장이 있었던 순천으로 내려와 3년 전 초밥집을 열었다. 김씨 부부는 어린 남매를 위해 매일 오전 11시부터 새벽 1~2시까지 초밥집을 운영하며 성실히 살았다. 초밥집은 김씨 부부의 친절함에도 '동네 맛집'으로 이름날 정도의 맛 덕분에 제법 많은 단골 손님도 생겼다. 아픈 몸 탓에 학교보다는 병원에서 지내던 날이 많았던 김군에게는 바쁜 아빠, 엄마를 대신해 아무진 성격의 누나가 든든한

보호자이자 친구였다. 이들은 늘 함께 손을 잡고 다니며 주변 공원과 놀이터 등에서 자주 놀았고, 동네 어른들의 기억속엔 인사가 매우 바른 해맑은 남매였다. 하지만, 착하다 착했던 이들 남매는 지난 6일 집 근처에서 다정하게 콜팝(콜라+조각 치킨)을 나눠먹던 마지막 모습을 남기고 이웃들의 곁을 떠났다. 하지만, 착하다 착했던 이들 남매는 지난 6일 집 근처에서 다정하게 콜팝(콜라+조각 치킨)을 나눠먹던 마지막 모습을 남기고 이웃들의 곁을 떠났다. 재기를 꿈꾸며 열심히 살아가던 김씨 가족에게 지난 7일 새벽 화마(火魔)가 덮친 것이다. 잠결에도 가족 모두는 화장실로 대피했지만, 엄마와 어린 두 생명은 결국 세상을 떠났다. 이날 새벽 4시경 1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길은 건물 전체로 삼시간에 번졌고, 연기와 불길은 유일한 대피로인 계단을 타고 김씨 가족이 잠들어 있던 2층을 덮쳤다. 뜨거운 기운과 연기에 잠을 깨 김씨 부부

는 119에 신고한 뒤 아이들과 화장실로 대피했지만, 화마는 점점 김씨 가족에게 다가왔고 남매에 이어 부모도 의식을 잃었다. 화재에 취약한 패널 건물의 천장 등이 삼시간에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소방대원들도 구조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대원들이 불길을 뚫고 화장실에 진입했을 땐 가족 모두 쓰러져 있었고, 남매는 이미 목숨을 잃은 상태였다. 남매는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에도 서로의 몸에 의지한 채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병원으로 이송된 엄마 조씨는 이날 오전 9시 50분경 남매의 뒤를 따랐고, 남편 김씨만 현재 의식을 되찾은 상태다. 김씨 부부와 가깝게 지냈던 인근 상인(37)은 "김씨 부부는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손님은 물론 주변에도 항상 친절 한 모습이었다"면서 "사고 나기 전날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서로 손을 잡고 아이스크림을 사러가는 모습을 봤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해 가슴이 먹먹하다"며 울먹였다.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2층 가정집으

로 이어지는 1층 계단 옆 식자재 창고에서 불길기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등은 특히 신축 건물이라는 점에서 전기누전 등에 의한 화재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지난 2012년 지어진 해당 건물은 1층 상가(289㎡ 규모), 2층 주택(90㎡)으로 구성돼 있으며, 1층에는 김씨의 초밥집과 세탁소가 입주해 있었다. 소방시설법에서는 연면적 400㎡ 이상일 때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건물에는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가 급격히 확산한 주원인은 건물 벽을 구성하고 있는 샌드위치 패널의 영향이 컸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광주·전남 샌드위치 패널 건물에서 일어난 화재는 2015년 136건, 2016년 131건, 2017년 145건, 2018년 현재 43건으로, 같은 기간 사상자만 20명에 이른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순천=김은중기자 ejkim@kwangju.co.kr

친구들과 후배 집단폭행한 여고생 구속

광주에서 친구 10여명과 함께 후배를 집단 폭행한 고3 여학생이 구속됐다. 광주주부경찰은 "후배 여학생을 집단 폭행·협박한(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폭행 등) 혐의로 A(17)양을 구속하고, 폭행에 가담한 11명을 불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양은 지난달 23일 밤 11시 30분께부터 다음날 새벽 3시 30분까지 광주시 북구 전담대 후문 인근 한 카페와 골목길에서 같은 학교 1학년 후배 B(15)양을 때린 혐의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이 과정에서 A양의 친구와 후배 11명도 B양을 때리거나 침을 뱉고, 침이 묻은 사탕 등을 억지로 먹인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 조사결과, 이미 다른 사건으로 보호관찰 중인 A양은 이날 우연히 카페에서 만난 B양에게 자신의 남자친구와 같이 술을 마신 이유를 따져 묻는 과정에서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2시간 반 먹통' SKT 보상금 인당 600~7300원

지난 6일 발생한 SK텔레콤 통화 장애로 피해 고객은 이를 치 요금을 보상받게 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요금제별로 인당 600~7300원에 해당한다. 지난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밝힌 장애 시간은 전날 오후 3시17분부터 5시48분까지 2시간 31분으로, 약 분당 보상 기준 3시간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약관과 별도로 자체적인 보상안을 마련했다. 장애 피해 고객 730만명에게 실납부 월정액의 이를 치를 보상하는 게 골자다. 여기에는 알뜰폰, 선불폰, 해외 로밍

서비스 이용 고객도 포함된다. 보상 대상에는 발신뿐 아니라 수신 실패도 해당한다. 장애 발생 후 전화를 한 번도 안 걸었다더라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못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조사에 따르면 지난 6일 장애 원인은 LTE HD용 보이스 장비의 오류로 확인됐다. 보통 VoLTE(음성LTE)로 전달되어야 할 HD 보이스가 장비 오류로 LTE망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주파수 대역폭도 좁고 서킷 방식인 3G망으로 전환되면서 통신신호가 몰려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

장애인 급여·수당 2억여원 횡령 복지법인 원장 구속

순천경찰은 "지난 6일 장애인 급여와 수당 2억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횡령, 사회복지사업법 위반)로 사회복지법인 원장 김모(48)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법인설립 시 투입한 기본재산 8억1360만원을 감사가 끝나자마자 빼내 혐의(사회복지사업법 위반)로 법인이사장 정모(여·74)씨와 후원회사 대표 정모(63)씨도 불구속 검거했다. 김씨는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순천에 있는 지적장애 및 중증장애인 생활 시설 원장으로 일하면서 국고보조금

으로 고용한 장애인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장애수당 등 2억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김씨는 시설에 거주하던 지적장애 2급, 3급 장애인을 각각 직원으로 고용해 빨래, 청소 등 허드렛일을 시키고 5년여간 국고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1억3700여만 원을 착취했다. 김씨는 또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정부에서 매월 받는 장애수당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간식비, 소풍 등 야외활동 비용 등의 명목으로 1억1900여만원을 인출해 썼다. /순천=김은중기자 ejkim@kwangju.co.kr



사랑 나누는 공유장터 '봄꽃잔치와 함께하는 우리누리 공유장터'가 7일 북구청 광장에서 열렸다. 광주시 북구와 자원봉사센터가 마련한 이번 행사는 가족, 개인, 지역아동센터 등 50여개 팀이 참여해 의류와 생활용품, 장난감 등 중고물품을 판매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회삿돈 37억원 횡령하고 잠적한 개발업자 검거

수십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잠적한 여수 상포지구 개발업자 김모(48)씨가 검거됐다. 8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경 경기도 일산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검찰은 수사관을 보내 김씨를 순천지청으로 압송, 도주경위와 행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토지 개발업체 Y사 대표인 김씨는 여수 상포지구 개발을 위해 개발업체를 설립한 뒤 이사 박모(40)씨와 함께 37억원을 횡령해 잠적했다. 애초 경찰은 김씨가 상포지구 개발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보고 수사를 벌였다. /순천=김은중기자 ejkim@kwangju.co.kr

지난해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돼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씨는 잠적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상포지구 개발 과정에서 추가로 제기된 횡령 혐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평사리 일대를 매립해 개발한 상포지구는 1994년 조건부 준공 후 20년 넘게 방치됐다. 2015년 Y사가 해당 용지를 매입하고 택지개발을 재개했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여수시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성폭행 피소 장애인단체 간부

민주노총, 직무정지 촉구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지부는 지난 6일 성명서를 내고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장애인단체 간부 A씨의 직무를 정지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지부는 성명서에서 "광주시의 장애인단체 간부인 A씨가 2005년 도가니 사건 당시 한 청각장애 여학생을 인화학교 화장실에서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광주시는 A씨에 대해 직무 정지 조치를 취하라"고 주장했다. "A씨는 피해자를 만난 적도 없다. 성폭행은 억지주장"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동거녀 살해 50대 긴급체포

본인은 음독...야산서 발견

영암경찰청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정모(58)씨를 긴급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5일 오전 7시경 영암군 삼호읍 자신의 단독주택에서 동거녀 A(여·53)씨를 흉기로 4차례 찌르고 머리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정씨는 7일 오전 10시에 강진군의 한 야산에서 음독한 뒤 쓰러진 채로 경찰에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A씨와 5년 전부터 동거를 했으며,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암=전통통신기자 jbh@kwangju.co.kr

펜션 온돌방서 일산화탄소 중독 가족 8명 구조

순천의 한 펜션 온돌방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증세를 보인 가족 8명이 119에 의해 구사일생. ○~8일 전남소방본부와 순천경찰청에 따르면 경북 경주에서 가족여행을 온 A(53)씨 등 일가족 6명은 이날 새벽 5시10분경 순천시 해룡면 한 한옥식 펜션에서 한방에 투숙하던 중 어지럼증과 구토 등을 호소했으며, 같은 날 오전 8시경에는

다른 방의 투숙객 B(64)씨 등 2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것. ○~병원으로 이송된 8명은 감압치료 등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펜션 온돌방 구들장에서 장작이 타면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방안으로 누출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영광주택매매(급매)

전원주택(영광읍) 광주에서 30분!!
즉시입주 가능(최근리모델링 전체 완료)
텃밭, 정원, 창고, 차량진입가능

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

◆시세가 1억 2천◆
매매가 9천 4백

주인직매 010-6670-9800

신축 원룸 매매 (원룸전문)

◎월곡동 신축건물 (최고급)
(월곡시장 2분, 고려인마을 1분)

총 4층건물
(원룸 12개, 투룸2개)

월수익 550만 예상

◆매가 : 8억 5천만◆

- 1 월곡동 산정공원 바로앞(코너) 주인집거주 ▶매가 9억5천만
- 2 전대정문 2분 (원,투룸 18개) 월수익 800만 ▶매가 13억 5천만
- 3 전대정문 2분 (원,투룸 18개) 월수익 800만 ▶매가 13억5천만

010-7384-7800 010-6670-9800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 1) 화순 도곡면 (무인텔) 토 3,289평 건 3,278평 객실 32개(월수익 5,000만 이상) ▶감평가 39억 → 최저가3억8천
- 2) 광산구 신창동 (월룸빌딩) 토 55평, 건 120평 광주보건대 부 ▶감평가 3억8천 → 최저가2억6천7백
- 3) 수원지구 (1층상가) 토 101평, 건 65평 국민은행 사거리 위치 ▶감평가 12억7천 → 7억
- 4) 서구 광천동 (주택) 토 92평 건 54평 감평가 1억8천6백 → 최저가 1억8천6백
- 5) 남구 노대동(상가건물)어린이집 감정 4억8천7백→최저가 3억4천4백
- 6) 광산구 수원동 (1층 상가) 감평가 9억6천→ 최저가 6억7천
- 7) 남구 진월동 (5층 상가원룸) 감평가 7억5천 → 최저가 7억5천
- 8) 광산구 신창동 (원룸빌딩) 감평가 3억8천 → 최저가 3억8천
- 9) 남구 진월동 (5층 상가빌딩) 감평가 18억 → 최저가 18억
- 10) 동구 충정로 (3층 상가빌딩) 감평가 4억6천 → 최저가 4억6천
- 11) 광산구 수원지구 (주차빌딩 1층) 감평가 12억7천 → 최저가 7억천

A.P.T·주택·공장·기타 등

- 1) 서구 치평동 금호타운 아파트 (39평) 감정 2억2천4백 → 최저 1억5천6백
- 2) 서구 내방동 내방주공아파트(24평) 감정 1억9천8백 → 최저 1억7천
- 3) 남구 주월동 (무동파크) 25평 감정 1억4천 → 최저 9천8백만
- 4) 서구 치평동 금호대우아파트(24평) 감정 1억8천 → 최저 1억2천6백
- 5) 광산구 소촌동 스위트밸리 (34평) 감정 1억8천 → 최저 1억2천6백
- 6) 광산구 용동(공장) 토 500평 건 445평 감평가 9억7천 → 최저가 6억7천
- 7) 함평군 신광면 (공장) 감정 26억4천 → 최저 7억5천7백
- 8) 광산구 삼계동 (공장) 감평가 6억 → 최저가 4억2천
- 9) 목포시 신정동 (노유자시설) 감정 16억8천2백 → 최저 9억4천
- 10) 담양군 금성면 (임야 5,730평) 감정 9천 → 최저5천

010-6670-9800 062)382-5500

경매 교육 (3월초 개강)

경매로 이제부터 돈많이 버세요~

- 1) 무료반 실시 - 오전오후
- 2) 기초반 - 경매기초 + 기본실전(무료교육)
- 3) 실전투자반 - 기초+실전 - 매매까지

1) 기초반 → 경매기초 + 기본실전(무료교육)
2) 실전투자반 → 기초+실전 - 매매까지

경매 가족을 모집합니다!

- 1) 경매 배우면서 근무하실분
- 2) 경매 컨설팅하면서 수익내실분

평생회원 → 책상,컴퓨터,교육(무료제공)

062)382-5500
010-6670-9800